

##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점에서 원자력의 역할 논의

### 2018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 주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국제 행사인 「2018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정재훈) 주최로 4월 25~26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3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정재훈 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 송양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한 국내 인사와 세계원자력협회 서지 콜린(Serge Gorlin) 본부장, 체코국제상공회의소 미할 메이스트릭(Michal Mejstřick) 의장, 영국원자력산업협회 톰 그레이트릭스(Tom Greatrex) 이사장, 웨스팅하우스 랜디 감(Landy Galm) 아시아지역부사장 등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7백여명이 참석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개회세션에서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정책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원전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이제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올라섰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원전을 운영하자”고 강조했다. 정재훈 회장은 “이제는 원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번 연차대회가 원자력계를 둘러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역량을 키워나갈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D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원자력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종합적인 기술 역량,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한-사우디 SMART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형 원자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양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중심인 부산에서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개최된 점을 부산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부산시는 창조경제시대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기반의 도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원자력과 함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과 흐름에 따라 원자력계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안과 미래 세대를 위해 원자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자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A Time of Change, Nuclear Energy for Tomorrow)’을 대회 주제로 삼았다.

기조강연에서는 •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 세계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장순홍 한동대 총장), • 원자력과 중부유럽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미할 메이스트릭 체코 국제상공회의소 의장), • 변화의 시대와 원전 수출(랜디 감 웨스팅하우스 아시아지역부사장)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축사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차관



개회세션 전경



연차대회에 참석한 원자력계 주요 인사



2018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개막 테이프 커팅



정재훈 한국원산 회장(왼쪽에서 3번째), 이진규 과기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둘러보고 있다.

한편 25일 오전에는 ▲ 원자력 안전과 신뢰, ▲ 원자력산업의 세계화, ▲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등 3개의 패널 토론 세션이 동시에 열렸으며, 연차대회 이틀째인 26일에는 연차대회 주제인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이희용 제일파트너스 대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지광민 한전KPS 상무,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장문희 포항공과대 겸직교수,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8인의 국내 전문가들이 자유 토론을 벌였다.

원자력연차대회 기간중에는 '2018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동시에 개최되었다(4.25~27). 이번 국제원자력산업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 등 110여 개의 국내외 원자력 관련 기관과 회사가 참가해 300여개의 부스를 열고 원자력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인 원전해체기술특별전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원전 해체 선진 기업들의 해체 기술에 대한 열띤 홍보와 함께 국내 업체와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재단,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R&D성과전시관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의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차대회 기간 중 원자력기자재 구매상담회,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사업설명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력공기업 취업설명회, 원자력품질보증 교육과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교육 등 교육 강좌도 열려 연차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원자력 분야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제 행사로서, 고리 1호기 상업운전 개시일(78. 4. 29)을 기념하여 1986년부터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김영승 팀장 등 10명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주관한 제25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이 4월 25일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제3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세션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제25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제18회 원자력국제협력 유공자 표창,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수상, 그리고 한국원자력공로상 순으로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제25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수상자 명단

△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김영승 △ 한전KPS(주) 부장 김용현 △ 두산중공업(주) 부장 박헌영 △ (주)무진기연 기술본부장 이한철 △ 한전원자력연료(주) 선임연구원 박세민 △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김태곤 △ (주)대우건설 차장 김광열 △ 한국전력기술(주) 차장 서강완 △ (주)수산이앤에스 책임연구원 황성재 △ 현대건설(주) 부장 장영석

### ■ 제18회 원자력국제협력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시상을 하고 있는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원자력기술상 수상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장 Luca Nicodemo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선임연구원 정진호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책임연구원 조혜륜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과장 유우정 △ 두산중공업(주) 부장 김주창 △ 한전원자력연료(주) 과장 지은실 △ 한국전력기술(주) 주임 정계안 △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김창희

■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수상자 명단

△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김용수 △ 한국전력기술(주) 상무 정환용 △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김기석 △ 한전원자력연료(주) 책임연구원 최재돈 △ 두산중공업(주) 부장 서영빈

■ 2018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공로상 수상자 명단

△ 두산중공업(주) 전무 박화규 △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김명현 △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안중하 △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장현승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궁구 △ 한국연구재단 단장 박홍준 △ 한전KPS(주) 실장 최한식 △ 한전원자력연료(주) 부처장 이종무 △ 한국원자력연구원 센터장 임채영

한국원자력기술상은 원자력산업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원자력산업 진흥 및 원자력 기술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후보 대상자를 추천받아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은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원자력기술상〉 수상자 공적 요지



□ 김영승 /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한수원 R&D 체계 혁신방안을 수립, 이행하고 개방형 R&D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국민 안전·안심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



□ 김용현 / 한전KPS(주) 부장  
21년간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원자력발전설비의 안전운영 기반 구축 및 문제점 해결, 성능개선 및 정비업무를 통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



□ 박현영 / 두산중공업(주) 부장  
35년 간 산업현장에 근무하며 국내 원전 주기 제1차 국산화(월성 중수로형 원자로, 한국형 경수로 주기기)에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원전 기술 자립화를 통한 국내 원전 및 해외 원전 주기기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



□ 이한철 / ㈜무진기연 기술본부장  
해외 의존하던 원자력분야 핵심 보조품목에 대한 국산화개발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도약에 기여함은 신규사업품목 발굴에 기여함.



□ 김태곤 /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공급자 등록절차 간소화 등 전략적 공급자 관리를 통한 건전한 원전 생태계 유지, 한수원형 SCM시스템 설계 및 운영,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 김광열 / ㈜대우건설 차장  
대우건설 원자력사업 담당자로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해외 원자력 시공기술 수출 및 사업관리를 통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함.



□ 박세인 / 한전원자력연료(주) 선임연구원  
원자력 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원천기술인 원전노심설계코드 개발 및 노심열설계 방법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HIPER16 핵연료용 임계열속 상관식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 노심열수력설계의 기술 자립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함.



□ 서강완 / 한국전력기술(주) 처장  
APR 1400 원전 인공공학검증설비 개발을 통한 최초 설계 확인과 원전시뮬레이터사업 기술력 향상 및 원전 안전운전에 기여함.



□ 황성재 / ㈜수산이앤에스 책임연구원  
차세대 신규 전 계측제어시스템(MMIS)용 안전 등급 제어기기(POSAFE-Q PLC) 국산화 개발 및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 등급 제어기기 적용에 기여함.



□ 장영석 / 현대건설(주) 부장  
원전시공 기술자립, 자재국산화,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한 원전 경쟁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원전산업 발전과 국내 최초 해외 원전 수출의 획기적 성과 달성에 기여함.

## 제47차 정기총회, 제118차 이사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3월 30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강재열 한국원산 부회장 주재로 제47차 정기총회와 제11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17년도 이사회 및 총회 경과보고와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 안건으로 2017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어 열린 제118차 이사회에서는 박동욱 현대건설(주) 사장, 송문선 (주)대우건설 사장이 한국원산 비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제47차 정기총회가 강재열 한국원산 부회장 주재로 열렸다.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연차대회 참석



JAIIF 연차대회에 참석한 한국의 주요 인사. 사진 왼쪽부터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 다카하시 아키오 JAIIF 이사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조병옥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원흥대 한수원 내진기술실장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JAIIF)가 매년 주최하는 JAIIF 연차대회가 4월 9일부터 10일 까지 양일간 도쿄 도시센터호텔(Toshi Center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 및 저명인사 약 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JAIIF 연차대회에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동국대, 조선대 등 7개 기관에서 17명이 참석했다. 🍷